

“입시 흐름 파악에 도움 돼요”

| | |
|-------|------------|
| 거주 | 대구 수성구 범어동 |
| 자녀 | 고1, 중3 |
| 구독 기간 | 6개월 |



〈내일교육〉은 어떻게 구독하게 됐나요?

큰아이의 고교 입학을 앞두고 어느 교육 블로그에서 언급된 걸 보고 도움이 될 것 같아 구독했습니다. 학부모 교육이나 설명회에서도 〈내일교육〉을 종종 참고 자료로 사용하기에 눈여겨봤거든요.

요즘 자녀 교육 고민은 무엇인가요?

고1인 큰아이가 좀처럼 시간 관리를 못해 답답해요. 제 판에는 열심히 한다고 책상 앞에 앉아 있지만 효율적으로 공부하진 못하는 것 같아서요. 실 때는 차라리 폭 잤으면 좋겠는데 늦은 시간까지 게임을 하거나 휴대전화 삼매경이고요. 고등학교 때 스스로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찾아낸 학생의 이야기를 기사로 다뤄줄 수 있을까요? 엄마가 하는 말은 잔소리처럼 들릴 테니 아이에게 슬쩍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.

독자가 뽑은 베스트 기사



〈내일교육〉에 바라는 점이 있나요?

시기별로 가장 필요한 교육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 읽으면 입시 흐름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돼요. 특히 얼마 전에 수시 특집호를 보면서 고3 학부모에게 정말 유용하겠다고 생각했죠. 요즘은 중3인 둘째의 고교 선택이 가장 큰 관심사인데 수시 특집호처럼 고교 유형별 선택 가이드 기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. @

Reporter's A/S

고교 선택이 고민이라면 일단 1133호 '2025 고입 캘린더' 기사에서 유형별 고교 특징과 신입생 모집 일정을 확인해보세요. 1135호 '기숙형 고교 길라잡이' 기사에서는 특목·자사고부터 일반고까지 기숙사를 갖춘 전국 고등학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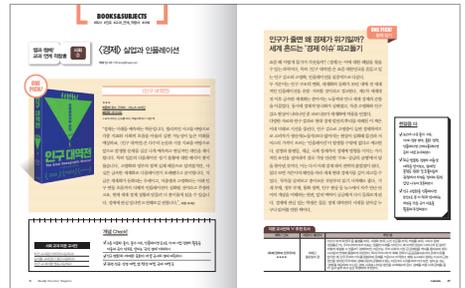
본지 1133호
'2025 고입 캘린더'
기사 참조



본지 1135호
'기숙형 고교
길라잡이' 기사 참조



인터뷰에 응해주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.
“안녕하세요! 〈내일교육〉 편집부입니다.” 어느 날 불쑥 전화를 받는다면, 주저하지 마시고 평소 느꼈던 아쉬움이나 칭찬하고 싶은 내용을 솔직하게 전해주세요.



쌤과 함께! 교과 연계 적합書_ 사회 ②

〈경제〉 실업과 인플레이션

“고1인 큰아이의 학생부에 들어갈 탐구 활동 보고서 주제가 늘 고민이거든요. ‘교과 연계 적합서’를 읽다 보면 꼭 아이의 희망 전공이 아니더라도 탐구 활동으로 이어갈 독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 도움이 돼요.”



2024 수시 합격생 릴레이 인터뷰 31_ 서강대 인공지능학과 이승연

역동적인 시의 세계, 소설 읽으며 관심 키웠죠

“수시 합격생 인터뷰는 제일 열심히 챙겨 읽는 기사입니다.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과정이 늘 인상적이더라고요. 가끔은 처음부터 쪽 잘했던 학생 말고 역전에 성공한 학생의 이야기도 소개해주세요.”